“열린 결말 너무 아쉬워 시즌2 나오면 좋겠어요”

권상우, 최근 종영한 ‘추리의 여왕’서 맨몸 액션 눈길

“3개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가장 힘들지 않게 작업했던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웠어요.”

최근 종영한 KBS 2TV 수목극 ‘추리의 여왕’에서 하드보일드 형사 하완승 역을 소화한 배우 권상우(41·**사진**)는 지난 31일 서울 신사동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처음 대본을 볼 때 ‘추리의 여왕’이 최강희 씨라고 생각하고 보니 신선하고 재밌었다”며 “남자 배우로서 왜 ‘추리의 왕자’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극본이 재밌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추리의 여왕’은 권상우가 ‘유혹’(2014)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이다. 막판에 MBC TV ‘군주-가면의 주인’에 덜미가 잡히면서 수목극 시청률 2위로 마감했지만 그 전까지는 한 달간 1위를 지키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초반 댓글을 보면 한 사건만으로 오래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시청률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도 평범한 아줌마가 사건을 해결해내는, 한국적인 추리극의 탄생에 많은 분이 통쾌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열려도 너무 열린 결말’은 많은 시청자의 궁금증을 낳았다.

권상우도 “아쉬운 게 많아서 PD님한테 시즌2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최강희씨만 한다고 하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화’(2001) 이후 16년 만에 다시 만난 파트너 최강희에 대해서는 “호흡이 매우 잘 맞았다”며 “강희 씨가 맡은 유설옥 캐릭터도 사랑스러웠고, 서로 애드리브도 잘 주고받으며 재밌게 연기했다. 강희 씨가 힘든 장면도 척척 해내는 것을 보니 저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옥이 유부녀이다 보니 진지한 러브라인은 없었다. 그러한 설정이 실제 유부남인 권상우로서는 다행(?)이었던 모양이다. “러브라인이 없어서 촬영할 때 편했다”는 그는 아내 손태영을 의식한 듯 웃으며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도 이번 작품을 무심한 척 몰래몰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티 내지는 않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얘기를 나눠 보면 본 티가 났어요.”

와일드한 형사 역할이었던 만큼 액션 장면도 꽤 많이 소화했다. 맨몸 혈투와 화려한 발차기 등을 선보이면서 다치기도 했다.

“4.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풀샷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액션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멋지게 뛰어내렸죠. 그런데 왼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한동안 힘들었어요. 물주머니가 생겨 몇 번 물을 빼기도 했죠. 또 섬에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쉰 목소리로 연기한 적도 있었어요.”

2001년 MBC TV ‘맛있는 청혼’으로 데뷔한 권상우는 그동안 드라마 13편, 영화 17편에 출연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도 종종 얼굴을 비쳐 대중과 친숙하다.

권상우는 “아내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취미다.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며 “특히 정준하 형과 MBC ‘사십춘기’에 출연한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좋게 봐주셨다. 준하 형이 계속 또 같이하자고 꼬신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육아 예능’ 출연에 대해서는 “부부가 배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꾸미게 될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기 17년 차, 여전히 연기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권상우는 한 작품을 할 때마다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저는 늘 가진 것에 비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운이 좋았죠. 40대에 접어들면서 연기자로서 어떤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종종 해요.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하면서 그 고민을 풀어나가고 싶어요.” /연합뉴스

유이 ‘애프터스쿨’ 떠난다

소속사와 계약 종료

가수 겸 배우 유이(29·**사진**)가 걸그룹 애프터스쿨을 탈퇴했다.

애프터스쿨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이가 2017년 5월31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 애프터스쿨을 졸업하며 플레디스 또한 떠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이와 함께 해온 플레디스는 유이의 앞날을 응원하며 더욱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유이 역시 이날 애프터스쿨의 인터넷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탈퇴 사실을 알렸다.

유이는 “신입생을 타이틀로 애프터스쿨에 데뷔했던 게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라며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졸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제 차례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젠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되진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졸업생이라는 타이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레디스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멤버들에게 고맙고 미안해. 앞으로 어디서든 밝고 즐겁게 일하는 유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애프터스쿨로 데뷔한 유이는 연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미남이시네요’ ‘오작교 형제들’ ‘상류사회’ ‘결혼계약’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지난해 말 ‘2016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는 ‘불야성’으로 최우수연기상을 받는 등 배우로서 자리를 잡았다. /연합뉴스

지드래곤 컴백

4년 만의 솔로 앨범 발표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사진**)이 오는 8일 컴백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드래곤이 이날 오후 6시 4년 만의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앞서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드래곤의 앨범을 믹싱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매우 임박’이라고 알려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지드래곤은 2009년 첫 솔로 앨범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와 2012년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 2013년 ‘쿠데타’(COUP D‘ETAT)를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월드투어에 나선다. 6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3개 도시, 북미 8개 도시, 오세아니아 4개 도시, 일본 3개 도시 돔투어 등 총 19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10 2017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 vs 세이트루이스〉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수상한 파트너(재)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재)	00 7일의 왕비(재)		
12	00 KBS 뉴스 12	05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당신은 너무 합니다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17 한국오픈 1R
1	00 4차 산업혁명 특선 미래 신산업, 플라스마가 뜬다 50 꼬마농부 라비			
2	20 2017 단오장사 씨름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황금주머니(재)	00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맨 인 블랙박스 (재) 30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생방송 빛날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UHD 개국 특집 3부작 KBS 대기획 디렉터스컷 임진왜란 1592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수목드라마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다큐 2부작 우주극장	10 500회 기획 해피 투게더	10 오빠생각 스페셜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35 UHD 개국특선 드라마 프로듀사 (재)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윗동네 생필품 이야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40년 만의 용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감자범벅과 오징어당근 생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할아버지의 운동학개론〉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매리설산, 마방 엄마〉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깜언! 맛있는 베트남〉
21:30 한국기행 〈아무도 몰라 바다맛〉
21:50 과학 다큐 비욘드 〈웨어러블 로봇, 강화 인간을 꿈꾸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똘똘한 할아버지와 순둥이 손자의 방콕 유람기〉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음 5월 7일 己未)

子 **48년생** 주변에 인연이 박한 이들이 보인다. **60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72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84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행운의 숫자 : 54, 82

丑 **49년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73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85년생**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니 잘 살펴라. 행운의 숫자 : 31, 05

寅 **50년생** 건실한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본다. **74년생** 번거로울 뿐이며 의미도 없다. **86년생** 빼도 박도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 행운의 숫자 : 49, 16

卯 **51년생**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후회, 막급할 것이다. **63년생** 참으로 난감할 수다. **75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와 틀림없을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87년생** 건너짚었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0, 40

辰 **52년생** 함께 하는 것이 길하다. **64년생** 지나친 사양도 결례임을 알아야 한다. **76년생** 기존의 고정 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임하는 의식을 달리 해야겠다. **88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6, 96

巳 **53년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니라. **65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어나가는 점이 없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77년생** 파격적인 진보가 있겠다. **89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8, 65

午 **42년생** 상대적으로 반응하리라. **54년생**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66년생**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78년생** 총체적인 점검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다. **90년생**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3, 85

未 **43년생**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55년생 기민하게 응대해야 한다. **67년생** 거슬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다. **79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91년생** 본원적 가치를 염두에 둬라. 행운의 숫자 : 04, 55

申 **44년생** 속단은 연쇄적인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56년생** 선악과 정사를 가리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68년생** 마지막 상황까지 지켜보고 최종 선택을 하라. **80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을 감지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8, 44

酉 **45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57년생** 도움이 절실하니 몸을 낮추고 구하라. **69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81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운의 숫자 : 50, 36

戌 **46년생** 확실한 절제와 과단성 있는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58년생**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겠다. **70년생** 처음처럼 그대로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2년생** 피하거나 보류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1, 06

亥 **47년생** 뜻밖의 일에 관련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59년생** 몰라서가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이니라. **71년생**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차질이 없는 법이다. **83년생** 힘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행운의 숫자 : 14, 2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